

두 남자의 셰익스피어 이야기가 시작된다

최영화



6~7일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오셀로가 이야기의 거짓말에 빠져 아내를 살해하고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박규상·고난영·송정우·김종필·이명덕씨 등 25명의 지역배우와 화가 주흥·백규석씨, 재즈 가수 레나타 미션·오영목씨 등이 참여한다.



광주대표 연극인 동갑내기 20년친구... 연출 대결

‘두 남자가 만드는 셰익스피어.’

연극인 오성완(51·푸른연극마을 대표), 최영화(51·호남대 교수)씨는 동갑내기 20년 지기다. 열악한 지역 연극관을 지켜온 두 사람은 성격이며 작품 연출 스타일이 판이하다. 오씨가 뜨거운 불같은 사람이라면, 최씨는 차가운 눈같은 사람이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새삼스레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며 웃었다.

두 사람이 자신만의 셰익스피어를 무대에 올린다. 오씨는 푸른연극마을 20주년 기념작으로 ‘맥베스’(5~6일 오후 7시30분, 7일 오후 5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공연한다. 최씨는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의 정기 공연작품 ‘오셀로’(6일 오후 7시30분, 7일 오후 4시 광주문화회관)를 연출한다.

두 사람에게 왜 셰익스피어인지부터 물었다.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게 매력적인 희곡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또 현대 작가 작품에 비하면 작품 구성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다양하게 해석하며 이리저리 변형해 제작하기 좋다고 답했다. 연출이 손대기에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점도 들었다.

“읽은 희곡 중에서는 ‘오셀로’만큼 현실과 닿아 있는 작품이 없다. 고전이 보통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쉽고 관중적이고 통속적이다. 사랑, 질투 등 보편적 감정들이 들어있고.”

“주인공 맥베스의 탐욕이 가져다준 결과와 요즘의 현실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나약한 맥베스, 자기 합리화에 능한 맥베스를 그려보고자 했다. 작품을 만들면서 혹시 내 자신이 예술 속에 숨어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에 무대에 올라가는 두 작품은 어떤 스타일일까. 대극장 버전을 연출한 최씨는 드로잉, 재즈, 영상 등이 어우러진 배리어티한 무대를 만들었다.

“작품을 3부로 나눠 오셀로, 데스데모나, 이야기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주인공의 심리를 보완해주기 위해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많이 부각시켰다. 샌드에 니메이션과 즉흥 재즈, 춤 등이 어우러진다. 광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버무려 작품을 만들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출연진들이 모두 톨바를 춘다.”

반면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오씨는 작품을 간결하게 정리, 감정을 압축했다.

“등장인물을 6명으로 축소해 간추리고, 작품 초반에 등장하는 세 마녀를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의 중심으로 표현했다. 일반적인 ‘맥베스’에서 강한 인상을 담기는 전투신을 축약했다. 레이디 맥베스와 맥베스의 죽음을 한 장면에 놓은 것도 특징이다. 촛불의 이미지도 강하게 사용된다.”

두 사람은 연극적 ‘토양’이 다르다. 곡성 출신으로 전남고 2학년 때 처음 연극을 접한 오씨는 조선대 국회를 거쳐 드라마스튜디오 등에서 활동하다 푸른연극마을을 꾸렸다. 전남대 국회를 통해 연극에 발을 내딛은 최씨는 소극장 문예정터를 개관하고 진달래 피네를 창립,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최씨는 “연극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연극이 삶의 전부다. 현장에서 은퇴무대를 갖는 게 꿈”이라는 오씨의 열정에 항상 놀란다. “나는 저 친구 만큼 할 수 없을 것 같다. 연극이 내 인생의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성완이에게는 연극이 전부인 거 같다.”

서로의 연출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졌다.

“내가 예뻐 돌아가는 반면 영화는 스토리를 압축하고 잘라버리는 데 탁월하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 일목요연 정리하는 것도 장이다. 작품에 군더더기가 별로 없지. 다양한 장르와 소스를 버무리는 것도 장점이다. 현장에서 너무 빨리 떠나 버린 게 아닌가 해 아쉽다. 치열함을 드러내는 작품을 보고 싶다.”

“성완이는 우리 교유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탁월하다. 구수하고 정감있고, 토속적인 장르와 연출에 장기가 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장점이다. 연기도 하지 않나(웃음). 방을 꾸민다고 한다면 나는 물건을 버리는 스타일이고, 성완이는 채워넣는 사람이다. 모던한 실험보다는 본인의 스타일을 강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

문의 푸른연극마을 010-6610-0525, 광주시립극단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성완



5~7일 푸른연극마을 20주년

세 마녀의 예언에 혹해 야심을 품고 권력의 야망에 이끌린 맥베스의 왕위 찬탈과 그 사건이 초래하는 비극적 결말을 다루고 있다. 극단 대표 오성완씨가 주인공 맥베스역도 맡았다. 이당금, 정이형, 박지수, 김명대씨가 출연한다.



찬란했던 순간도 언젠간...

주흥씨 개인전, 10일까지 메이홀



‘오드리 햄번’

작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역사적이고 찬란한 순간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며 “광주의 성숙한 정신적 가치를 화폭에 담은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와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한 주씨는 광주 허백련미술상 특별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10-6791-805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2월의 헌정’

광주시향 패밀리 콘서트, 내일 문예회관



서진 이석준

광주시립교향악단 패밀리 콘서트 ‘12월의 헌정’이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독일 루베크 극장 상임지휘자 등을 거쳐 현재 독일 크로스 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중인 서진씨가 객원 지휘를 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호른협주곡을 만날 수 있다.

(사)TIMF양상블, (사)한국페스티벌앙상블 멤버로 활동하는 이석준(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가 협연자로 나서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2번 작품 417’을 들려준다.

공연은 바그너의 ‘지그프리트의 목가’로 시작하며 피날레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실내교향곡 작품 110a’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



창업 31주년 KJB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창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2013년 송년 디너쇼



— 프로그램 —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



남지인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